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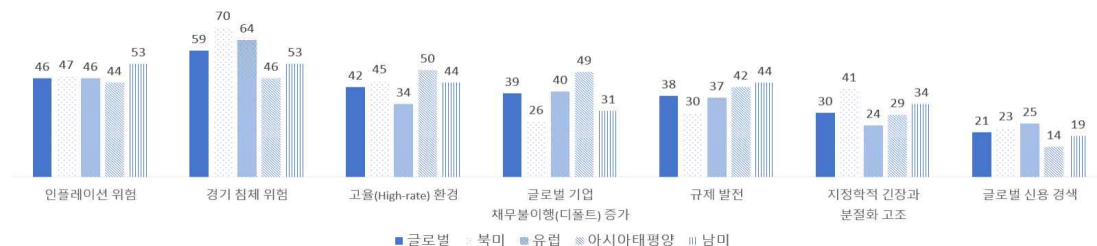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을 우려하면서도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자산군 중 사모사채(Private debt)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음.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현실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보험회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체투자를 업무위탁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 및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을 우려하면서도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제12차 글로벌 보험 보고서'¹⁾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경기 침체 위험(59%)과 인플레이션(46%)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1) 참조)
-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0%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Flexibility) 전략적 자산배분(SAA)에 초점을 맞춰 공공 및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응답함
 - 전략적 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SAA)은 보험회사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적인 기금 내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전략을 의미함
 - 국가별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 결정 동인을 살펴보면, 북미와 아시아태평양은 유연성(56%), 유럽은 새로운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52%), 남미는 새로운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및 위험 선호 증가(55%)임

<그림 1> 투자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단위: %)



자료: BlackRock(2023), "2023 Global Insurance Report"

1) 블랙록(BlackRock)의 '제12차 연례 글로벌 보험 보고서'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27개 국가에서 378명의 보험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의 (1) 새로운 투자 환경 수용, (2) 전환에 대한 투자, (3) 규제 및 회계 변경 관리, (4) 기술 솔루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자산군 중 사모사채(Private debt)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음

-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머서 올리버 와이만(Mercer Oliver Wyman)이 실시한 설문조사²⁾에 따르면, 응답자의 7% (생명보험회사 13%, 손해보험회사 4%)만이 현금 배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응답자의 73%는 현재 사모 시장(Private markets)에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산군별 증가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적격등급 사모사채(Investment-grade private debt), 하위투자등급 사모 사채(Sub-investment-grade private debt), 사모펀드(Private equity)가 각각 32%, 21%, 20%임
- 반면, 응답자의 26%는 유동성(59%), 투자 기회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자원의 제약(50%), 투자 수단의 복잡성 (32%) 등을 이유로 사모시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현실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주요국은 녹색산업 정책(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등)을 통해 녹색산업 정책을 추진 하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관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위에서 언급한 블랙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는 청정에너지 인프라(62%), 녹색건물(46%), 핵심인프라(42%), 녹색채권(37%), 전환지향적 사모부채(33%) 순으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함
- 보험회사는 녹색투자를 통해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변동성(54%),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43%), 지속가능성을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에 통합하는데 있어 어려움(40%)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넷제로(Net-Zero) 목표를 세운 보험회사는 37%로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며, 주요 국가들의 넷제로 목표 수립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14%, 영국 50%, 유럽 38%, 캐나다 80%, 아시아 17%임

○ 보험회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체투자를 업무위탁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 및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 자산과는 달리 비정형화된 시장에서 협상을 통해 투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보험회사는 운용사에 투자 위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임
 -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 신용평가 기관인 AM Best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투자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 운용인력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운용 지출 비율이 2016년 32%에서 2022년 40%로 꾸준히 상승함³⁾
- 업무위탁은 보험회사가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실질적 위험관리 및 수익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업무위탁을 통해 전략적 자산배분(SAA)에 대한 조언(83%), 다중 포트폴리오 관리(78%), ESG관련 보험상품(69%)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⁴⁾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전략을 구축할 것으로 보임

2) 머서와 올리버 와이만(Mercer and Oliver Wyman)의 '2024년 글로벌 보험 투자 설문조사'는 작년 4분기에 22개 국가에서 84개의 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의 투자 설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3) <https://news.ambest.com/newscontent.aspx?refnum=256323&altsrc=23>

4) CLEARWATER ANALYTICS(2023), "Insurance Asset Management Trends: Looking back over 10 years of the Insurance Investment Outsourcing Report"